해운업 불황에도 HMM 눈독… 하림·동원, 물류 전쟁 승자는

해운업 불황론에 매각 '이상기류'
하림·동원 HMM 인수전 의지 표명
하림, 컨테이너선 시너지에 박차
동원, 수산·식품 등 물류확장 풀이

'해운업 불황론'이 고개를 들면서 HMM 화물 사업부 매각에 빨간불이 켜졌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입찰 참여를 희망했던 기업들의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유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하림과 동원 두 기업이 입찰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눈길을 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한국해양진흥공사는 오는 23일 LX·동원·하림그룹 등을 대상으로 HMM 본입찰을 진행해 인수·합병(M&A) 우선 협상 대상자를 추려낼 계획이다. 인수 후보자로 나선 이 기업들은 지난 9월부터 이달 초까지 HMM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

HMM 인수가격은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합쳐 5조~7조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력 인수 후보로는 예비입찰에 나섰던 LX, 하림 그리고 동원그룹이 거론된다.

김홍국 하림 회장. /손진영 기자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 /동원그룹

LX는 현금성 자산으로 2조5000억원 규모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후보들 가운데 가장 재무 상황이 좋은 곳으로 꼽히지만, 최근 해운업 불황 등을 근거로 본입찰을 포기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실제로 HMM의 올 3분기 매출과 영업익은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각각 58%, 97%씩 하락했다.

동원그룹은 스타키스트·동원로엑스·동원홈푸드 등 3개 비상장 계열사에 대한 기업 공개를 추진해 HMM 인수 자금을 모은다는 계획이고, 하림그룹은 보유 중인 각종 부동산과 주식을 매각해 인수 대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림의 경우 이미 그룹소속 해운사인 팬오션이 최근 한진칼 주식 390만3973주를 1628억원에 처분하며 현금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처럼 동원과 하림은 각자 사정에 맞춰 HMM 인수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동원그룹의 경우 기존 수산부문이 안정된 수익원이기는 하지만, 그룹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업 다각화에 나서야 하는 차원에서 HMM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번 HMM 인수전 참여도 물류 사업 확장 차원으로 풀이된다. 수산·식품·포장재·물류 부문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다.

동원그룹이 물류사업을 시작한 것은 1997년이다. 당시 동원산업은 국내 최초 한·일 5개사 합작(동원산업·애경산업·삼양사·대한통운·미츠비시) 3PL전문물류기업인 레스코에 참여하며 물류사업에 진출했다. 지난 2016년 동원로엑스(전 동부익스프레스)를 인수하면서 물류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동원그룹은 컨테이너 터미널 항만사업을 영위하는 동원부산컨테이너터미널의 지분도 100% 소유하고 있다. 여기에 HMM까지 인수하면 해상 물류 사업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다.

하림그룹은 지난 2015년 국내 최대 벌크선 운송사 팬오션을 인수하고 물류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

팬오션의 경우 하림그룹에 합류한 이후 빠르게 실적을 개선했다. 하림에 인수된 지 5개월 만인 2015년 7월 법정관리를 졸업했고 2017년에는 매출액 2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팬오션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6조4204억원으로 전년 대비 39.1% 늘었고 영업이익은 7896억원으로 전년 대비 37.8% 증가했다.

현재 팬오션은 컨테이너선 사업보다 벌크선 사업이 중심이기 때문에 컨테이너선사인 HMM을 인수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게다가 기업 규모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HMM의 공정자산은 25조7890억원이다. 단순 합산으로 계산하면 하림그룹은 HMM 인수시 공정자산이 42조8790억원으로 늘어 재계 순위가 27위에서 12위로 상승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HMM의 유찰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HMM 인수금액이 최소 5조원에서 최대 7조원까지 예상되는데, 두 기업 모두 매각가를 감당하기 버거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HMM 노조 측은 해상운임은 지난해 대비 80% 가까이 급락한 가운데, 이번 입찰이 유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HMM이 국적선사로서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게 현금성 자산을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을 신중히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지스타서 韓 게임사 훨훨… 현장이벤트 등 색다름에 '대성황'

웹젠, 신작 3종 서브컬처 장르에 주목
넥슨, FC 모바일 유저위한 이벤트
엔씨, 개발 책임자가 시연 빌드 설명
게임대상선 네오위즈 P의 거짓 우승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 2023'에는 오랜만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석,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며 수상자들을 축하한데 이어 개막일에는 이례적으로 7년 만에 지스타에 다시 등장한 웹젠이 아예 B2C 부스에 선보인 3종의 신작 모두 서브컬처 장르로만 구성해 주목을 받았다.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2023 전경. /최빛나 기자

특히 웹젠은 자회사 웹젠노바가 개발 중인 신작 '테르비스'를 비롯해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와 '라그나돌' 등으로, 이 가운데 2D 애니메이션 기반의 수집형 RPG로 개발중인 '테르비스'는 전략적 요소가 살아 있는 전투와 다양한 협동 및 경쟁 콘텐츠를 처음으로 선보여 가장 주목을 받았다.

넥슨은 올해 B2C 부스에 나서진 않았지만, 대신 'FC 온라인'과 'FC 모바일' 유저를 위한 대규모 축제인 'FC 프로페스티벌'을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지스타 기간 내내 실시하며 또 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일반 방문객이 체험 가능한 BTC 콘텐츠가 벡스코 전시장(제1전시장, 제2전시장 1층)뿐만 아니라 야외를 비롯하여 컨벤션홀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확대됐다.

1전시장에서는 다이아몬드(메인) 스폰서로 참여한 위메이드가 '나이트 크로우'에 이은 또 하나의 대형 MMORPG인 '레전드 오브 이미르'와 신작 야구게임 '판타스틱4 베이스볼'을 최초로 선보였다. 플래티넘 스폰서로 참여한 구글코리아는 크로스 플랫폼을 주요 골자로 데브시스터즈의 '쿠키런: 모험의 탑', 플린트의 '별이 되어라2' 등을 소개하며 방문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엔씨소프트는 'LLL', '배틀크러쉬', '프로젝트 BSS' 등 총 3개 신작의 시연부스를 마련하고, 현장 이벤트를 통해 각 게임 개발 책임자가 시연 빌드를 설명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별도의 공간에서는 미디어 간담회도 진행, 각 게임의 청사진을 밝혔으며, 개막 첫날에는 김택진 엔씨 대표가 직접 무대에 올라 현재의 상황과 미래 방향성을 짚었다.

넷마블은 'RF 온라인 넥스트', '데미스 리본', '일곱개의 대죄 오리진' 등 다양한 게임으로 팬들을 맞이했다. 크래프톤은 신작 '다크앤다커 모바일', '인조이' 등 게임을 직접 시연할 수 있는 체험공간을 마련했다. 스마일게이트알피지는 신작 '로스트아크 모바일'을 최초로 선보이며 전시체험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올해 지스타서는 '2023 대한민국 게임대상'이 개최됐으며 네오위즈의 'P의 거짓'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에는 또 다른 강력 후보였던 넥슨의 '데이브 더 다이버'가 올랐으며, 스마일게이트의 '크로스파이어V R: 시에라스쿼드' 등 이들 작품 또한 플랫폼, 장르 모든 측면에서 다양성과 게임성을 모두 입증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오가노이드사이언스, 국내 최초 공간생물학 중요성 알린다

APAC 공간생물학 심포지엄 개최

글로벌 공간생물학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국내에서 공간생물학 관련 행사가 열린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첫 오가노이드 전문 기업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지난 14일, 경기도 판교 소재 차바이오 콤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제 심포지엄인 '다음 혁명을 위한 공간생물학'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가노이드사이언스와 아코야(AKOYA) 바이오사이언스, 비엠에스 3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주관한 것으로, 조직내 세포들의 공간적 이해관계를 연구하는 공간생물학의 중요성과 활용성을 알리고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진행됐다.

공간생물학적 분석은 생체조직 절편에서 다양한 바이오마커를 시각화하고 질병진행 및 약물반응에 따른 세포구성과 상호작용을 이해함으로써 생물학 연구에 포괄적인 통찰력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세포상호작용 연구, 바이오마커 발굴, 질병진단 분야에서 병원 및 학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전문가 11명이 참여하여 총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몰레큘러디바이시스, 웅비메디텍 등 10여개의 후원사가 참가하여 현장 부스를 운영하였다. 또 참가자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개최되어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유종만 대표는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상호 소통하는 자리로 국내에서 처음 개최되어 많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최근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두 번째,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아코야로부터 'PhenoCycler-Fusion' 분석 수행 기관으로 공식 인증을 받은 사실도 공개됐다. 'PhenoCycler-Fusion'은 아코야가 개발한 시스템으로 조직의 미세 환경에 존재하는 100여개의 세포의 표현형을 정확히 구별하여, 이웃한 세포들의 특성과 관계를 공간적으로 해석한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유종만 대표(왼쪽 두번째)가 지난 14일, 경기도 판교 소재 차바이오 콤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제 심포지엄인 '다음 혁명을 위한 공간생물학'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 대표는 "이번 행사가 아시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공간생물학 전문가들의 모임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공간생물학 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크게 뒤쳐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